

5/6

2014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미술포럼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59

SUK CHUL-JOO

Lee Kyu-Sun, Lee In-Se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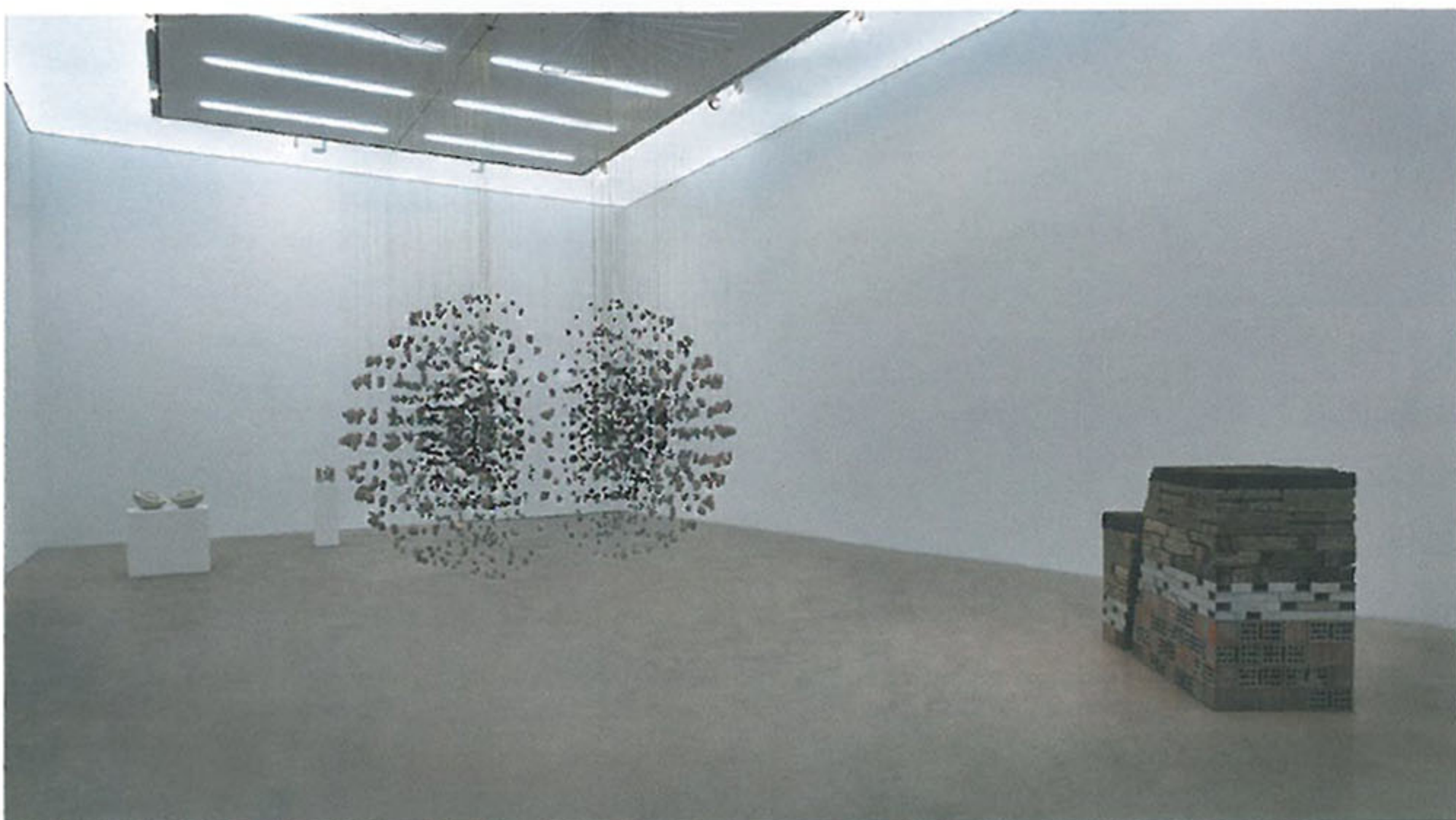
Park Chul, Shin Jong-Shik



다미안 오르테가전

2014. 4. 10 - 5. 11 국제갤러리 3관

그가 탐구하는 주요한 작품 주제는 특정한 경제 혹은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것으로서, 실례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특정 지역의 상품소비현상이 향후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내용을 미학적인 범주의 문화현상으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인 공간에 대해 다양한 현실적인 관점을 통해 질문을 던지며 환경 혹은 생태주의, 후기 사회주의 및 동시대현상에 따른 도심형성에 대해 탐구한다. (문의: 02-735-8449)



▲ 다미안 오르테가 ▼ 다미안오르테가 전시 전경 전체

오르테가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비(非) 미술적 재료들을 다루어왔다. 그의 작품은 사용된 재료의 본질적인 용도와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을 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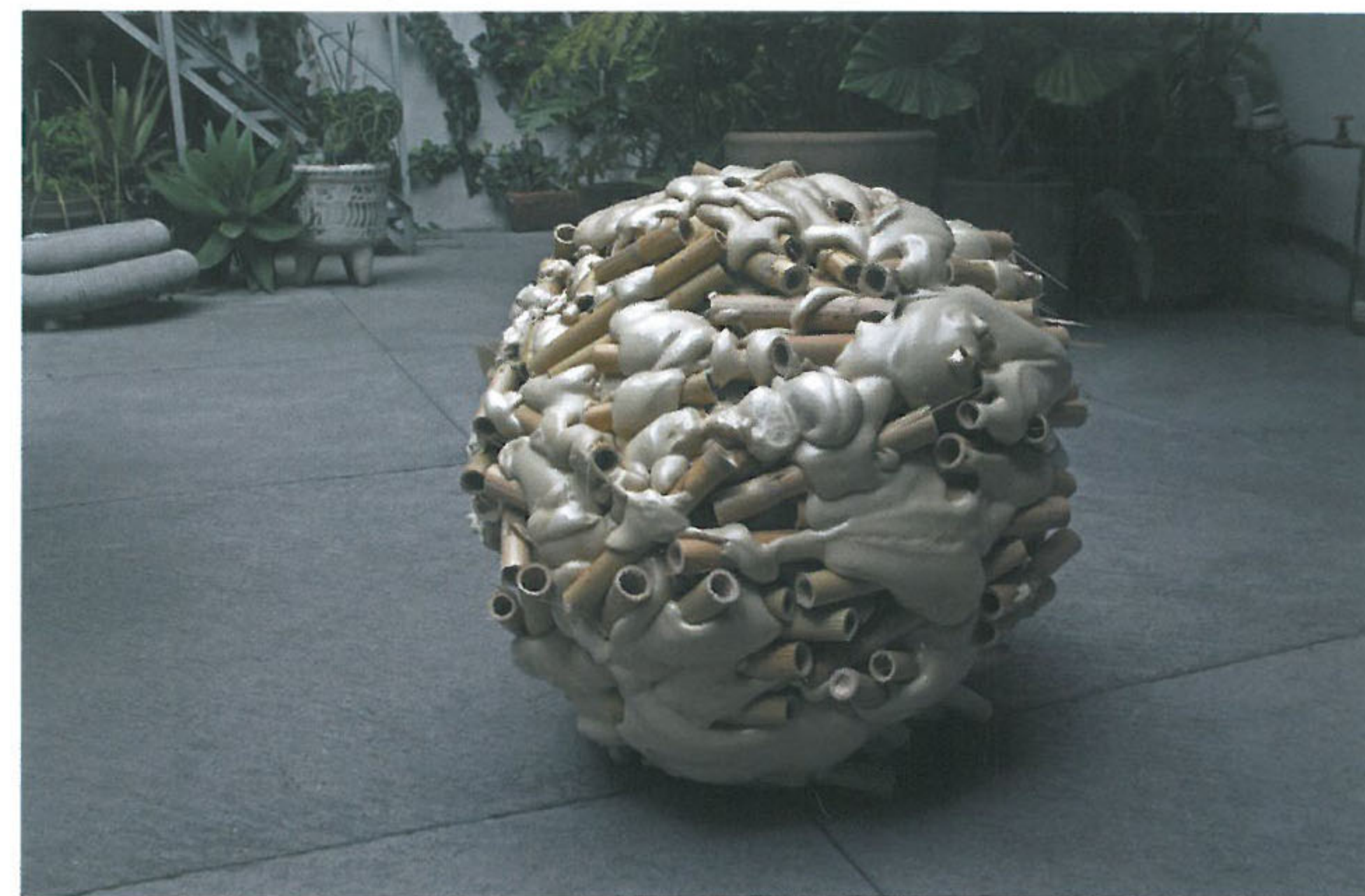
그가 탐구하는 주요한 작품 주제는 특정한 경제 혹은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것으로서, 실례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특정 지역의 상품소비현상이 향후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내용을 미학적인 범주의 문화현상으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인 공간에 대해 다양한 현실적인 관점을 통해 질문을 던지며 환경 혹은 생태주의, 후기 사회주의 및 동시대현상에 따른 도심형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적 구성주의 예를 들면 라틴계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조각품과 신 구성주의 곧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가 본격적인 작품활동 전 당시 신문사에서 정치만화(cartoon)를 제작하는 만화가로 활동했을 시 받은 영향을 나타낸다. 오르테가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 새로운 방

식의 기법을 개발하고, 재료를 연구하며, 일상적 재료를 세분화시켜 그만의 새롭고 도전적 방식의 작품언어로 탈바꿈시킨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오르테가의 <Reading Landscape>전에 참여되는 주요 작품들은 지질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참여작품들은 지구의 역사 예를 들면 지각이 10여개의 거대한 판으로 구성되어 지각 위의 얼음덩어리와 같이 부유하고 있다는 지구물리학 이론인 판 구조론에서 영감을 받은 형상들을 묘사하기도 한다. 그와 연결된 일종의 조각작품으로는 유색의 덩어리들로 채워진 기둥 혹은 직육면체 조각들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개별적인 입체의 덩어리들이 완전히 조합되지 않은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조각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갤러리 3관에 설치되는 대형 조각 작품은 각기 다른 재료들의 지층으로 형성된 구조를 연상시키는 개념적 조각작품으로서 콘크리트, 벽돌, 다양한 타일들과 같은 산업재료를 만들어져 있으며, 때때로 지층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일컬어지는 지면 위의 잔디를 연상시키는 지질의 표면 또한 함께 제작 예정이다.

그 외에도 마치 지층의 단층을 연상시키는 듯한 페이퍼마셰 (Papier Mache) 곧 펄프에 야교를 섞어 만든 종이 재질을 이용한 작품은 다양한 물성과 재료에 따른 레이어들을 통해 감싸고, 덧씌우고, 색칠하며 입체조각을 형성해나가며 각기 다른 성질의 재료를 일종의 제스처로서 기록한다. 같은 맥락으로 보도자료에 첨부된 이미지 중 하나인 둥근 형상의 입체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ias>는 마치 지구를 상징하는 듯 하며 지질의 층위를 통한 세계관을 의미하는 제목으로서 상당한 양의 다양한 재료들을 한 겹씩 겹쳐서 제



▲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ias · 110×110×110cm · Polyurethane foam, bamboo, paper, cardboard, sisal, styrofoam · 2014 ▼ Geoda 2 · Paper, paint and glue · 2014

작했고, 이 지난한 시간들은 마침내 잘려진 단면을 통해 수많은 재료들의 겹겹의 의도를 시각적이며 행위를 동반한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오르테가의 지난 주요한 작품으로는 미국 보스턴의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및 LA 현대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인 폭스바겐사의 뉴 비틀 VW Beetle 차량을 분해하여 설치한 작품 <Cosmic Thing, 2002>가 있다.